

금호타이어 30일 ‘운명의 날’

채권단, 노사에 자구안 합의·해외자본 유치 등의 최후통첩 산자부, 평화당 간담회 해외매각 불가피...노조 오늘 총파업

금호타이어 운명은 어디로 흘러갈까.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해외 매각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지역경제계가 노조의 최종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노조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정해지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가능성도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채권단, “30일까지 결론내라” 최후 통첩=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단)는 지난 12일 금호타이어 노조에 오는 30일까지 ▲노사 합의로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노조가 이날 낮 12시까지 해외 매각 철회와 4개월째 지체되지 않고 있는 채 불임금 해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데 따른 답변으로, 사실상 ‘해외매각 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채권단은 “유동성 문제 등으로 채권단 공동관리절차를 유지할 대안이 없는 만큼 외부자본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얘기다.

◇“해외매각 불가피”=산업은행 외 정부의 금호타이어에 대한 시각도 해외매각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당장, 민주평화당 주최로 이날 열린 정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도 정부가 해외매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듯한 입장을 밝혀 주목됐다.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고령권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산업은행 이대현 수석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GM 사태 및 금호타이어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지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 “일자리 유지를 위한 차선책으로 현재 상황

에서는 해외매각이 불가피하지 않으나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인수기업이 있으면 국내 기업 매각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여서 마땅한 다른 (국내) 기업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실장의 발언은 금호타이어 문제와 관련한 정부측 시각과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될만하다.

다만, 문 실장은 “산업 영향과 지역경제, 일자리를 고려하면 청산되는 것보다는 최대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금호타이어가 전자기 타이어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어서 해외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면밀히 검토해서 승인 여부 방안을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금호타이어 김중호 회장이 지난 12일 광산구 송정탑 고공농성장을 찾아 해외매각의 불가피성을 전달하고 노조에 대화를 제안했다.

김 회장은 “현재 회사는 자력으로는 정상화가 불가능하고 외부 자본 유치와 채권단의 지원이 있어야만 법정관리를 피하고 정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사가 주

어진 현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더블스타의 구체적인 인수 목적 및 조건,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회사의 독립경영, 3단계(고용보장, 노동조합, 단체협약), 국내공장 투자 등에 대한 회사의 핵심 요구사항을 더블스타에 전달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노조에 설명했다.

◇노조, 14일 총파업·대정부투쟁=금호타이어노조는 해외 매각 철회를 위한 본격적 대정부 투쟁에 들어간다.

노조는 14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송신탑에서 광주·곡성공장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해외매각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총파업을 계기로 다음주부터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청와대를 상대로 해외 매각 철회를 위한 릴레이 상경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노조는 해외매각 철회를 위한 10만 광주시민대회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도 펼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94.49 (+10.37)	금리 (국고채 3년) 2.30% (0.00)
↑ 코스닥 886.25 (+1.98)	↑ 환율 (USD) 1067.50원 (+2.30)



광주은행 50주년 사은 특판예금 판매

15일~5월 3일 1인 5억원 한도 연 0.35%P 추가 금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50일간 ‘고객감사 특판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고객감사 특판정기예금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1년제로 가입 가능하다. 총 판매한도는 2000억원으로 기간 중 한도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기분금리 연 2.0%에 추가로 연 0.35% 포인트의 우대금리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2.35%의 특별한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신규가입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0.05%포인트, 광주은행 정기예금 첫 거래 고객(이 예금 가입일 이전 3개월내 광주은행 정기예금 거래가 없는 고객 포함)의 경우 연 0.30%포인트가 각각 추가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광주은행을 사랑해주신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신규고객 및 주거래 고객 모시기의 일환으로 이번 특판 정기예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혜택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우대금리는 신규가입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0.05%포인트, 광주은행 정기예금 첫 거래 고객(이 예금 가입일 이전 3개월내 광주은행 정기예금 거래가 없는 고객 포함)의 경우 연 0.30%포인트가 각각 추가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농협 농업인월급제 첫 급여 지급

96명에 9600여만원...29일까지 신청자 추가 접수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13일 ‘광주시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의 첫 달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광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광주시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에는 벼 재배농가 124명이 신청했다.

이후 심사결과 적격대상자 96명에게 이달 첫 급여로 9551만4000원이 지급됐다.

농업인월급제는 지난 1월 농협 광주본부와 광주시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전국 광역시 단위에서는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김일수 본부장은 “가을철 벼 수매 전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어 영농비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차 미니밴 ‘더 뉴 카니발’ 판매 돌입

기아차가 미니밴 ‘더 뉴 카니발(사진)’을 국내 시장에 내놓았다.

기아차는 13일 서울에서 뉴 카니발 사전·영상 발표회를 열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뉴 카니발은 외관에 새로운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LED 헤드램프와 주간주행등, 사각 얼음 모양의 4구 LED 안개등을 적용하고 실내를 나무 무늬 우드그레인으로 스티어링 휠(운전대), 도어 트림 등을 꾸며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국산 미니밴 최초로 ‘전륜 8단 자동변속기’가 실려 변속이 부드럽고 연료 효율도 높다는 게 기아차 설명이다. 뉴 카니발의 연비는 ▲R2.2 디젤 엔진

11.4km/ℓ (9인승·18인치 타이어 기준) ▲라다II 개선 3.3 GDI 엔진 8.2km/ℓ 다.

R2.2 디젤 엔진은 배기가스 내 질소산화물 등 오염 물질을 요소수를 사용해 줄이는 SCR 시스템을 적용, 동급 최초로 강화된 유로6 기준을 충족했다.

뉴 카니발은 정차 후 재출발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차로 이탈 경고(LDW), 후측방 충돌 경고(BCW),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하이빔 보조(HBA) 등 다양한 안전 기능도 갖췄다.

가격은 7~11인승 디젤·가솔린 등으로 나뉘어 3150만~3920만원선에서 책정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신혼부부 전세임대 368가구 공급

LH, 광주 238·전남 130가구...최대 20년 거주

광주·전남지역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368가구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으로 광주·전남지역에 368가구를 비롯, 전국에 65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몰색

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이다.

광주 지역은 238가구(동구 13·서구 48·남구 27·북구 80·광산구 70가구), 전남 130가구(광양 25·나주 10·목포 35·무안 6·순천 25·여수 29) 등이다.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기존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자격요건이 완

화됐고 지원가능 금액도 증액됐다. 광주의 경우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올해 입주 예정으로, 입주 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뒤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구직자 선호 1위 ‘삼성전자’

13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구직자 1092명을 대상으로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삼성전자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31.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한국전력공사(20.4%)로 그 뒤를 이었고 ▲현대차 19.1% ▲LG전자 14.6% ▲포스코 13.6% ▲한국가스공사 11.6% ▲기아차 11.3% ▲SK이노베이션 11.1% ▲SK하이닉스 10.7% ▲CJ제일제당 10.3% 등이 ‘톱10’에 들었다. /연합뉴스



Aroma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혈액순환 안되고 갑갑함 짚이야?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가능성속옷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 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발단면역각형 사용

해당심층수각중미네랄
이온, 실리카미노산,
원적외선 특수물질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